

제목: "새로운 헌신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교회에서 예배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우신 새로운 교회를 통하여 새로워지기 원하시는 것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움은 무엇입니까?

- 1) _____의 새로움입니다.
- 2) _____의 새로움입니다.
- 3) 하나님 _____에 대한 새로움입니다.

이러한 새로움이 우리교회를 통해서 계속 이루어 질 때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그 동안 기도해 온 이 지역 이 시대에 복음을 온전하게 전하는 일을 분명히 맡겨 주실 것입니다.

지난주일 헌금	
합계	

오레곤 새로운교회는
 예수님을 만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교회는 인생의 슬픔 끝 그리고
 행복이 시작 시작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인생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인생과 영원한 삶을 위하여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하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을 오레곤 새로운교회로 초청합니다.

"새로운 헌신을 하나님께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Let Us Give a New Heart to God " (II Cor. 5: 17)



주일 예배 Sunday Worship Service

- 오후 2시 2 PM 인도: 김성민 목사
President: Rev. Jason Kim
- * 예배로의 부름 인 도 자
Call to Worship President
- * 찬 양 다 같 이
Praise All Together
- 예배를 위한 합심기도 다 같 이
Prayer All Together
- 성경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설 교 자
Scripture Reading II Corinthians 5: 17 신약 291 페이지 President
- 말 씬 새로운 헌신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김성민 목사
Message Let us give a new heart to God Rev. Jason Kim
- 찬 양 310(410) 아 하나님의 은혜로 다 같 이
Praise I Know not Why God's Wondrous Grace All Together
- 헌금/기도 다 같 이
Offering and Prayer All Together
- 광고/환영 인 도 자
Announcement President
- * 찬양과 헌신의 기도 주만 바라볼지라 다 같 이
Praise and Prayer Only Jesus All Together
- * 축 도 설 교 자
Benediction Rev. Jason Kim

오레곤 새로운교회 New Church of Oregon
 10683 NW Valley Visata Rd. Hillsboro, OR 97124 (503)332-1941
 담임: 김성민 목사 (Rev. Jason Kim, Senior Pastor)

담임목사 컬럼

할렐루야! 새로운 시대가 시작 되었습니다. 마음과 뜻을 같이 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과 같은 행복은 이 세상에 어디를 가도 찾을 수 없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잠언 16장 8-9절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또한 하박국은 3장 17-19절에서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소유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솟아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과 기쁨은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같이 하는 형제와 자매들이 주님 앞에 같이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교회의 모습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과 큰 조직은 없다고 하여도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마음을 같이 하는 형제자매들이 우리 곁에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가슴이 뻥뻥합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를 사모하고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한다는 그 자체가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교회를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제 각기 그 이유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지나간 모든 아픈 기억들과 어려움들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항상 부어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깨닫게 하실 은혜의 비전을 사모하여 달려가야 하겠습니다. 인생은 너무나도 짧고 시간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 남아 있는 시간과 건강 그리고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여 드리고 또한 서로를 행복하게 하는 교회가 되십시오.

우리교회는 모이는 교회이고 또한 흠어지는 교회입니다. 더 이상 교회를 건물이라고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곳이 교회임을 늘 증명하며 살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에게는 기쁨과 행복 그리고 충만함과 사랑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어떠한 교회를 꿈꾸고 계시는지 기도하며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새로운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지금 옆에 계신 분을 한 번 돌아보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예배를 드리십시오.

교회소식

1. 환영합니다

오늘 오레곤 새로운교회 주일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예배 후 성도의 교제가 있습니다. 함께 사랑하고 회복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장소를 제공해 주신 이석순 장로님 가정에 감사드립니다.

2. 기도의 삶

하루 30분씩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십시오.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새로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꼭 실천하십시오.

3. 주일 예배 장소

현재 두 장소를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잘 연결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생명의 삶

다음 달부터 생명의 삶을 통하여 온 성도들이 함께 말씀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5. 교회 이름 확정

우리교회 이름이 오레곤 새로운 교회 (New Church of Oregon) 로 확정되었습니다. 정부 EIN 번호와 Oregon State Non-Profit Organization 번호가 허락되어서 돌아오는 주간에 은행을 결정 하려고합니다.

6. 앞으로의 계획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새로운 건물로 예배를 옮기기 이전에 우리 모두 잘 준비하여 주위에 예배가 필요한 분들을 교회로 초청할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와 서로를 향한 사랑입니다.

7. 헌금 안내

기쁜 마음으로 자유로이 자원하며 헌금을 드리시고 Check에 제목을 New Church of Oregon으로 써 주시기 바랍니다.

8. 9월 행사 및 모임

구역모임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